

통 지 서

친애하는 김철희 임마누엘 형제님

우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하느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의 성령의 이끄심과 섭리하심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봉사해 주고 계셨
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천주교 춘천교구는 천주교 청주교구로부터 형제의
강의와 방문 활동 중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즉, 형
제는 교회의 정통 교리를 부인하거나 이미 금지된 신심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
용을 언급했고, 특히 여러 교우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그 가정을 방문하여
치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
니다. 이에 본 교구는 즉시 제기된 문제와 여러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우리
교구 내에서의 추가 증언을 확보했고, 제기된 문제들이 상당수 사실이거나 개
연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모든 내용이 교구장 김주영 시
몬 주교에게 보고되었고, 교구장 주교는 사무처장 정영우 세례자 요한 신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제들과 신학 전문가로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제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여 6월 20일 오후 2시, 천주교 춘천교
구청에서 개최된 위원회는 형제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상세히 심의했고, 그 결
과를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심사숙고
한 교구장 주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형제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을 명하
셨습니다.

이에 춘천교구 총대리 배종호 토마스 신부는 입회한 사제들과 함께, 김철희
임마누엘 형제에 대한 교구장 김주영 시몬 주교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
는 바입니다.

1. 김철희 임마누엘에 대한 춘천교구 성령기도회 강사 자격을 박탈한다. 당연
히 어디에서도 ‘회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2. 다양한 형태의 성령 기도회 및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강의를 금한다. 더불어
개인적인 기원이나 치유, 가정 방문 및 금품 수수를 금한다.

천주교 춘천교구

3.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을 활용한 활동을 금하며, 기존의 것들은 모두 폐쇄하거나 없앨 것을 명한다.

더불어 이 통지문은 한국 천주교 모든 교구 사무처와 춘천교구 사제단에 공유될 것이며, 혹시라도 이 통지의 내용을 거부하거나 반하는 행동으로 기존의 문제가 반복되어 계속될 경우, 교회는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형제님께서 세례받은 하느님 백성으로 가톨릭 정통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6. 30.

천주교 춘천교구 총대리 배종호 토마스

사무처장 정영우 세례자 요한

사목국장 조영수 마태오

성령쇄신봉사회 담당 엄기선 베네딕토

춘천교구 총대리 배종호 토마스 신부님을 통해 전달된, 춘천교구장 김주영 시몬 주교님의 통지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했음을 아래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2023. 6. 30.

김철희 임마누엘

